

II. 환경경영 : 新기업환경주의

최근 미국에서는 新기업환경주의(New Corporate Environmentalism)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Anthony J. Buonicore이 EM誌 7월호에 기고한 “The New Corporate Environmentalism”이라는 글을 통해 新기업환경주의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국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기업환경주의의 특성을 분석한 글이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환경회계와 정보 공개 부분은 선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실천수단이라 생각된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는 동안 미국 산업계에 너무 자주 휘둘러져왔던 환경 채찍(Environment Stick)은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세에 분명히 영향을 주어왔다. 현명한 기업들은 “투쟁을 종료”하고 마침내 “열차를 타게”되었다. 한때 유명한 영화에서 명배우가 말한 것처럼, “저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resistance is futile)”.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에 적절히 반응할 것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흔히 “기업환경주의(Corporate Environmentalism)”라고 언급되고 있다. 기업환경주의는 지난 몇 년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규제와 이의 시행, 벌금과 페널티의 위협에 의해 주로 유도되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효율 개선, 성과 증대, 경쟁력 증대와 같은 경영전략에 의해 더욱 유도되고 있다. 新기업환경주의는 이전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규제준수(Compliance)

과거에는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그들의 목표로서 규제준수 한계를 이용해왔다. 모든 노력은 최소비용으로 규제준수를 달성하는데 기울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新기업환경주의하에서는 실제로 규제준수를 넘어서는 기업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정부의 규제자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실질적인 편익을 획득하리라고 믿는다. 흥미롭게도 “지속적인 개선(Continual Improvement)”이라는 개념은 ISO 14000 환경경영 국제표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규제준수 특징(Point of Compliance)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규제준수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End of Pipe) 이었다. 오염방지시설은 전형적으로 배출규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의 끝부분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新기업환경주의에서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는 흔히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과 폐기를 사전억제하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공정개선이 사후처리에 비해 훨씬 비용효과적이다. 사전오염예방은 처리방식으로서 오염제어를 대체해오고 있는 것이다.

■ 추진력(Driving Force)

1990년대 이전에, 기업환경주의 이면에 주요 추진력은 규제이었다. 규제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기업은 상당한 벌금과 벌칙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더구나 몇몇 경우에는 범죄 손해배상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 추진력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新기업환경주의는 환경규제를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 -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을 위한 공정점검을 위한 기회, 경쟁력 확보라는 기회, 대중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기회. 新기업환경주의하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시장주도 추진력(a business or market-driven driving force)은 전통적인 정부 규제자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투자자, 주주,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회계법인과 같은 대리 규제자와 함께 스스로를 규제 추진력(Regulatory Driving Force) 상위에 설정하고 있다.

■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

환경 규제 준수는 전통적으로 경영에서 비용으로 간주되어왔다. 新기업환경주의에서, 현명한 기업들은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하나의 기회로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은 발생하는 모든 환경비용을 적절히 회계 처리하고 있다(bucketed properly and accounted for). 불행히도, 환경규제준수에 동반되는 많은 비용이 예를 들면 손해배상, 보험, 유지비용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상품과 공정에 직접적으로 적절히 할당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다양한 일반 회계(overhead account)로 숨겨져왔다. 보다 강화된 환경회계는 오염 저감과 심지어 투자회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절약된(saved) 벌칙과 벌금과 같은 "숨겨진" 비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투자회수를 훨씬 개선시킬 것이다.

■ 자세(Attitude)

新기업환경주의는 규제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시각에 대한 자세 변화를 분둔는다. 전통적으로 규제자들은 "적"으로 인식되고 기업은 흔히 그들 스스로를 불행한(그리고 비용이 드는) "우리과 그들"로 위상을 설정하였다. 일반대중은 흔히 무엇이 최상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몇몇 기업에 의해 보다 겸손한 방식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新기업환경주의하에서는 규제자와 일반대중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 공개(Openness)

과거에 기업들은 흔히 그들의 대부분의 활동을 비밀로서 인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정보를 쥐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보다 의식 있는 대중은 보다 많이 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활동 특히 환경활동에 대한 공개에 대한 보다 새로운 분위기가 존재한다. 많

은 기업은 그들의 환경성과에 대한 특별 연간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과시함으로써 그들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환경보호에 대한 미국 기업의 자세에 대한 현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新기업환경주의 기치 하에서 현명한 기업들은 환경 개선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에 책임을 지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서 바라보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기업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기업의 상품을 적극 구매할 것이다.

조 역 수 (환경경영기획팀 선임연구원)

☞ 참고자료 : Anthony J. Buonicore, "The New Corporate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 Management*, AWMA, USA, 1998. 7.